

창조적인 행정문화로 국민건강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열린마루〉 독자 여러분께 완전한 봄을 맞아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출발한 식약청이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식약청 역시 이러한 취지에 맞게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초대 식약처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역사적인 사명감이 밀려옵니다. 저는 식약처 모든 관련 직원들과 함께 이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임직원 모두가 식약처장이라는 생각으로 오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식약처는 ‘안전한 사회’와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브랜드 부처입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



민 안전의 기본이 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부터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출범시켜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고, 식품위해사범을 퇴출하기 위해 고의적 위해사범 전 반에까지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하며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범위를 최고 10배까지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어린이 보호지역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통합해 학생안전지역으로 개편하는 등 아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시민감시단을 출범해 민관이 함께 불량식품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불량식품근절뿐만 아니라 식품, 의약품 안전 강국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과 첨단 보건 의료산업이 창조 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 관련 산업 종사자와 협의 하에 구체적인 시책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건 물론, 국민의 목소리, 현장감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식·의약업체의 의견도 경청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초대 식약처장으로 <열린마루> 독자 여러분과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항상 국민 행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편익위주의 창조적인 열린 행정문화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